

2020년 4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호균(044-201-1891), 서기관 최승묵(1840) / 제공일 3월 31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%감면

- 농번기(4~7월) 동안 농기계 임대료 일 5천 원~105천 원 인하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부담 및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41개 시·군·구에 농번기(4~7월) 동안 농기계 임대료를 50%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(3.26.)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%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(3.26.)했다.

○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(4~7월)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%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,

-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.

* 임대료(1일) : (기존) 10~210천 원 → (감면) 5~105 → (지자체 15% 추가 인하시) 4~79

-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였다.
-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,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 대비 10~20% 정도 증가하였다고 한다.

-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며,
-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